

2013학년도 수능대비 : 수능 종합언어 <이론과 유형>편 부교재

**New!** 2013학년도 대수능을 위한,

# 수능언어영역 하자성어 완벽장복기



김강원(리웰)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1학번 /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위 0.075%(연수와 표점기준) / '비문학 훈련도감' 저자 / 리웰 학습전략 연구소 소장 / 오르비스 옵티무스(Orbis Optimus) 학습법 대표칼럼니스트 / 네이버 카페 '수만휘(수능날만점시험지를휘날리자)', 텐블스토리 최고 인기 칼럼니스트. / EBS 공부의 왕도 96회 <기회를 기적으로 만든 독해력 훈련 - 김강원>편, 118회 <최상위권으로 가는 자기 관리법>편 출연 / tbs 상담 받고 대학 가자 <언어의 비법>편, <여름방학 공신티킵>편, <파이널>편 출연 / 중앙일보, 여성조선, 매일경제신문, 부산일보, 부산KBS 등 인터뷰 / 자이스토리 문학편, 사회문화편 저자 / 신사고좋은책, 비타에듀, 능률교육, 이룸이앤비 등 학습참고서 모니터링 / 온/오프라인 학습법 상담 총 5,000건 이상.

E-mail [rewhel@naver.com](mailto:rewhel@naver.com)

Blog [blog.naver.com/rewhel](http://blog.naver.com/rewhel)

Twitter [www.twitter.com/rewhel](http://www.twitter.com/rewhel)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가가호호(家家戶戶) : 집집마다
- 가담항설(街談巷說) : 거리나 향간에 떠도는 소문.
- ✓ 가렴주구(苛斂誅求) : 가혹하게 착취하여 매우 재촉함.
- ✓ 가인박명(佳人薄命) : 여자의 얼굴이 너무 빼어나면 운명이 기박함.
- 각골난망(刻骨難忘) : 은덕을 입어 고마운 마음이 깊이 뺏속까지 사무쳐 잊히지 아니함.
- ✓ 각골지통(刻骨之痛) : 은혜의 고마움이 뼈에 사무쳐 잊히지 아니함. ㉞ 각골통한(刻骨痛恨)
- 각자도생(各自圖生) : 제각기 살아 나갈 길을 꾀함.
- 각주구검(刻舟求劍) :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음.
- 간난신고(艱難辛苦) : 몹시 힘이 들고 쓰라린 고생을 함.
- 간담상조(肝膽相照) : 서로 진심을 터놓고 사귀.
- ✓ 감언이설(甘言利說) : 남의 비위를 맞추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만 들어 꾀는 말.
- 감지덕지(感之德之) : 대단히 고맙게 여김.
- ✓ 감탄고토(甘香苦吐) :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, 싫으면 버림.
- 갑남을녀(甲男乙女) : 평범한 사람들. ㉞ 장삼이사(張三李四)
- ✓ 갑론을박(甲論乙駁) : 서로 논박함.
- 강구연월(康衢煙月) : 태평스러운 풍경.
- ✓ 개과천선(改過遷善) : 나쁜 잘못을 바르게 고쳐서 착하게 됨.
- 거두절미(去頭截尾) : 앞뒤의 잔말을 빼고 요점만 말함.
- 거자필반(去者必返) :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옴. ㉞ 회자정리(會者定離)
- 건곤일척(乾坤一擲) : 흥망을 걸고 담판 싸움을 하는 것.
- 격물치지(格物致知) :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앎.
- 격세지감(隔世之感) : 세대를 거른 듯한 느낌.
- ✓ 견강부회(牽強附會) :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도록 함.
- 견리사의(見利思義) :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함.
- 견마지로(犬馬之勞) : 임금이나 나라에 바치는 충성(자신의 정성을 겸손하게 일컬음).
- 견문발검(見蚊拔劍) : 하찮은 일에 너무 거창하게 덤빔.
- 견물생심(見物生心) :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김.
- 견원지간(犬猿之間) : 개와 원숭이의 사이. 대단이 사이가 나쁜 관계.
- 결자해지(結者解之) :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함.
- ✓ 결초보은(結草報恩) :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음.

- 가가호호(家家戶戶) :
- 가담항설(街談巷說) :
- ✓ 가렴주구(苛斂誅求) :
- ✓ 가인박명(佳人薄命) :
- 각골난망(刻骨難忘) :
- ✓ 각골지통(刻骨之痛) :
- 각자도생(各自圖生) :
- 각주구검(刻舟求劍) :
- 간난신고(艱難辛苦) :
- 간담상조(肝膽相照) :
- ✓ 감언이설(甘言利說) :
- 감지덕지(感之德之) :
- ✓ 감탄고토(甘呑苦吐) :
- 갑남을녀(甲男乙女) :
- ✓ 갑론을박(甲論乙駁) :
- 강구연월(康衢煙月) :
- ✓ 개과천선(改過遷善) :
- 거두절미(去頭截尾) :
- 거자필반(去者必返) :
- 건곤일척(乾坤一擲) :
- 격물치지(格物致知) :
- 격세지감(隔世之感) :
- ✓ 견강부회(牽強附會) :
- 견리사의(見利思義) :
- 견마지로(犬馬之勞) :
- 견문발검(見蚊拔劍) :
- 견물생심(見物生心) :
- 견원지간(犬猿之間) :
- 결자해지(結者解之) :
- ✓ 결초보은(結草報恩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✓ 경거망동(輕舉妄動) : 경솔하게 함부로 행동함.
  - 경국지색(傾國之色) : 세상에 드문 뛰어난 미인.
  - 경세제민(經世濟民) :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.
  - 경이원지(敬而遠之) :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멸시함.
  - 계란유골(鷄卵有骨) : 모처럼의 좋은 기회가 생겨도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음.
  - 고굉지신(股肱之臣) : 임금이 가장 믿고 중히 여기는 신하.
  - 고군분투(孤軍奮鬪) : 홀로 여럿을 상대하여 싸움.
  - 고량진미(膏粱珍味) : 맛있는 음식.
- ✓ 고립무원(孤立無援) : 고립되어 구원 받을 데가 없음.
  - 고복격양(鼓腹擊壤) : 태평성대.
  - 고신원루(孤臣冤淚) : 임금의 사랑을 잃게 된 신하의 원통한 눈물.
  - 고식지계(姑息之計) : 당장의 편안함만을 꾀하는 일시적인 방편.
  - 교육지책(苦肉之策) :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적을 속이는 계책.
  - 고장난명(孤掌難鳴) : 손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음. 혼자 힘으로 일하기 어려움.
- ✓ 고진감래(苦盡甘來) :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.
  - 곡학아세(曲學阿世) : 옳지 못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.
  - 골육상잔(骨肉相殘) : 같은 혈족끼리 싸우는 것. ㉠ 골육상쟁
  - 공명정대(公明正大) : 마음이 공명하며,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이 바름.
  - 공중누각(空中樓閣) : 아무런 근거나 토대가 없는 사물이나 생각.
- ✓ 공평무사(公平無私) :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.
- ✓ 과대망상(誇大妄想) : 턱없이 과장하여 믿는 망령된 생각.
  - 과유불급(過猶不及) : 지나침은 미치지 않은 것과 같다.
  - 관포지교(管鮑之交) :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사귄. ㉠ 문경지교, 금란지교, 수어지교
- ✓ 괄목상대(刮目相對) :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재주가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함.
  - 교각살우(矯角殺牛) :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임, 곧 작은 일에 힘쓰다가 큰일을 망침.
  - 교언영색(巧言令色) : 남에게 아첨하려고 듣기 좋게 꾸미는 말과 얼굴빛.
  - 구곡간장(九曲肝腸) : 굽이굽이 사무친 마음속.
  - 구밀복검(口蜜腹劍) : 외면으로는 친절하듯하나, 마음속으로는 해칠 뜻을 품음.
  - 구사일생(九死一生) : 죽을 지경을 당하였다가 살아남.
  - 구상유취(口尚乳臭) : 입에서 젖내가 날 만큼 언행이 유치함.

- ✓ 경거망동(輕舉妄動) :
  - 경국지색(傾國之色) :
  - 경세제민(經世濟民) :
  - 경이원지(敬而遠之) :
  - 계란유골(鷄卵有骨) :
  - 고굉지신(股肱之臣) :
  - 고군분투(孤軍奮鬪) :
  - 고량진미(膏粱珍味) :
- ✓ 고립무원(孤立無援) :
  - 고복격양(鼓腹擊壤) :
  - 고신원루(孤臣冤淚) :
  - 고식지계(姑息之計) :
  - 고육지책(苦肉之策) :
  - 고장난명(孤掌難鳴) :
- ✓ 고진감래(苦盡甘來) :
  - 곡학아세(曲學阿世) :
  - 골육상잔(骨肉相殘) :
  - 공명정대(公明正大) :
  - 공중누각(空中樓閣) :
- ✓ 공평무사(公平無私) :
- ✓ 과대망상(誇大妄想) :
  - 과유불급(過猶不及) :
  - 관포지교(管鮑之交) :
- ✓ 괄목상대(刮目相對) :
  - 교각살우(矯角殺牛) :
  - 교언영색(巧言令色) :
  - 구곡간장(九曲肝腸) :
  - 구밀복검(口蜜腹劍) :
  - 구사일생(九死一生) :
  - 구상유취(口尚乳臭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✓ 구우일모(九牛一毛) :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작은 것. ㉞ 창해일속
  - 군계일학(群鷄一鶴) : 변변치 못한 여러 사람 중 홀로 뛰어난 사람. ㉞ 계군일학
  - 군신유의(君臣有義) :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함.
  - 군웅할거(群雄割據) : 저마다 세력을 떨치려고 날땀.
  - 궁여지책(窮餘之策) :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짜낸 계책.
  - 권모술수(權謀術數) :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술책.
- ✓ 권불십년(權不十年) : 아무리 높은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함.
  - 권선징악(勸善懲惡) :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을 벌함.
  - 권토중래(捲土重來) : 한 번 패하였다가 세력을 회복해 다시 쳐들어옴.
  - 극기복례(克己復禮) :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의를 회복함.
- ✓ 근묵자흑(近墨者黑) :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에 물들기 쉬움.
  - 금과옥조(金科玉條) :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규정.
  - 금란지교(金蘭之交) : 친구 사이의 두터운 사귄.
  - 금상첨화(錦上添花) :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더함. ㉞ 설상가상
  - 금석맹약(金石盟約) : 굳은 약속.
  - 금석지교(金石之交) :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교제.
  - 금시초문(今時初聞) :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들음.
  - 금의야행(錦衣夜行) : 아무 보람이 없는 행동.
  - 금의환향(錦衣還鄉) : 타향에서 크게 성공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옴.
  - 금지옥엽(金枝玉葉) : 귀여운 자손.
- ✓ 기고만장(氣高萬丈) :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기세가 대단함.
- ✓ 기사회생(起死回生) : 중병으로 죽을 지경에 놓였다가 살아남.
  - 기상천외(奇想天外) :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이 기발하고 엉뚱함.
  - 기진맥진(氣盡脈盡) : 기운이 다 없어짐.
- ✓ 기호지세(騎虎之勢) :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형세.
  - 난공불락(難攻不落) : 공격하기가 어려워 좀처럼 함락되지 아니함.
  - 난신적자(亂臣賊子) :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아버이를 해치는 자식.
  - 난형난제(難兄難弟) :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려움.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.
  - 남가일몽(南柯一夢) : 한때의 헛된 부귀. ㉞ 일장춘몽, 일취지몽, 한단지몽
  - 남부여대(男負女戴) : 가난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살 곳을 찾아다님.

- ✓ 구우일모(九牛一毛) :
- 군계일학(群鷄一鶴) :
- 군신유의(君臣有義) :
- 군웅할거(群雄割據) :
- 궁여지책(窮餘之策) :
- 권모술수(權謀術數) :
- ✓ 권불십년(權不十年) :
- 권선징악(勸善懲惡) :
- 권토중래(捲土重來) :
- 극기복례(克己復禮) :
- ✓ 근묵자흑(近墨者黑) :
- 금과옥조(金科玉條) :
- 금란지교(金蘭之交) :
- 금상첨화(錦上添花) :
- 금석맹약(金石盟約) :
- 금석지교(金石之交) :
- 금시초문(今時初聞) :
- 금의야행(錦衣夜行) :
- 금의환향(錦衣還鄉) :
- 금지옥엽(金枝玉葉) :
- ✓ 기고만장(氣高萬丈) :
- ✓ 기사회생(起死回生) :
- 기상천외(奇想天外) :
- 기진맥진(氣盡脈盡) :
- ✓ 기호지세(騎虎之勢) :
- 난공불락(難攻不落) :
- 난신적자(亂臣賊子) :
- 난형난제(難兄難弟) :
- 남가일몽(南柯一夢) :
- 남부여대(男負女戴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남존여비(男尊女卑) : 사회적 지위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음.
- 낭중지추(囊中之錐) : 재능이 많은 사람은 숨기려 해도 저절로 드러남.
- ✓ 내우외환(內憂外患) : 나라 안팎의 근심과 걱정.
- 내유외강(內柔外剛) : 내실은 마음이 약한데도 외부에는 강하게 나타남.
- 노기충천(怒氣衝天) : 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함.
- ✓ 노심초사(勞心焦思) : 매우 애쓰며 속을 태움.
- 논공행상(論功行賞) : 세운 공을 논하여 상을 줌.
- 누란지위(累卵之危) : 포개어 놓은 달걀과 같이 위험한 상태. ㉠ 누란지세
- ✓ 능소능대(能小能大) : 모든 일에 두루 능함.
- 다기망양(多岐亡羊) :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진리를 찾기 어려움. ㉠ 망양지탄
- ✓ 다다익선(多多益善) : 많을수록 좋음.
- 다사다난(多事多難) : 일이 많고 어려움.
- 단도직입(單刀直入) : 문장이나 말에 있어서 요점을 바르게 풀이하여 들어감.
- 단사표음(簞食瓢飲) : 변변치 못한 음식. 소박한 생활.
- 단순호치(丹脣皓齒) :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.
- 단표누향(簞瓢陋巷) : 초라한 음식과 누추한 마을. 소박한 시골 살림.
- 당랑거철(螳螂拒轍) : 제 분수도 모르고 강자에게 대항함.
- 대기만성(大器晚成) :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.
- 대동소이(大同小異) : 거의 같고 조금은 다름.
- 도청도설(道聽塗說) : 길거리의 뜬소문.
- 도탄지고(塗炭之苦) : 몹시 쓰라린 고통.
- 독수공방(獨守空房) :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밤을 지내는 일.
- ✓ 독야청청(獨也青青) : 혼탁한 세상에서 홀로 높은 절개를 드러내고 있음.
- ✓ 동가홍상(同價紅裳) :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. 가격이 같으면 더 좋은 물건을 가짐.
- 동고동락(同苦同樂) :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김.
- 동량지재(棟梁之材) : 큰일을 맡을 만한 훌륭한 인재.
- ✓ 동문서답(東問西答) :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엉뚱하게 대답함.
- ✓ 동병상련(同病相憐) :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.
- ✓ 동분서주(東奔西走) : 사방으로 바빠 돌아다님.
- ✓ 동상이몽(同床異夢) : 같은 처지에서 서로 딴 생각을 함.



- 남존여비(男尊女卑) :
- 낭중지추(囊中之錐) :
- ✓ 내우외환(內憂外患) :
- 내유외강(內柔外剛) :
- 노기충천(怒氣衝天) :
- ✓ 노심초사(勞心焦思) :
- 논공행상(論功行賞) :
- 누란지위(累卵之危) :
- ✓ 능소능대(能小能大) :
- 다기망양(多岐亡羊) :
- ✓ 다다익선(多多益善) :
- 다사다난(多事多難) :
- 단도직입(單刀直入) :
- 단사표음(簞食瓢飲) :
- 단순호치(丹脣皓齒) :
- 단표누항(簞瓢陋巷) :
- 당랑거철(螳螂拒轍) :
- 대기만성(大器晚成) :
- 대동소이(大同小異) :
- 도청도설(道聽塗說) :
- 도탄지고(塗炭之苦) :
- 독수공방(獨守空房) :
- ✓ 독야청청(獨也青青) :
- ✓ 동가홍상(同價紅裳) :
- 동고동락(同苦同樂) :
- 동량지재(棟梁之材) :
- ✓ 동문서답(東問西答) :
- ✓ 동병상련(同病相憐) :
- ✓ 동분서주(東奔西走) :
- ✓ 동상이몽(同床異夢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동족방뇨(凍足放尿) : 언 발에 오줌 누기. ㉠ 고식지계, 미봉책, 임기응변, 임시변통, 하석상대
- ✓ 두문불출(杜門不出) : 세상과 인연을 끊고 나가지 않음.
- 登高자비(登高自卑) : ① 일에는 순서가 있음. ②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낮춤.
- 등하불명(燈下不明) : 등잔 밑이 어둡다. 가까이 있는 것을 모름.
- ✓ 마이동풍(馬耳東風) :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림. ㉠ 우이독경
- ✓ 막무가내(莫無可奈) :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어 어찌할 수 없음.
- 막상막하(莫上莫下) : 우열의 차이가 없음.
- 막역지우(莫逆之友) :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친한 벗. ㉠ 막역지간
- 만고상청(萬古常青) : 오랜 세월 동안 언제나 푸름.
- 만단정회(萬端情懷) : 온갖 정서와 회포.
- ✓ 만시지탄(晚時之歎) : 기회를 잃고 때가 지났음을 한탄함.
- ✓ 망양지탄(亡羊之歎) :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바른 길을 잡기 어려움.
- 망운지정(望雲之情) :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.
- ✓ 맥수지탄(麥秀之嘆) :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.
- ✓ 면종복배(面從腹背) :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.
- 멸사봉공(滅私奉公) : 사적인 것을 버리고 공적인 것을 위해 힘써 일함.
- 명경지수(明鏡止水) : 맑은 거울같이 깨끗한 마음.
- 명실상부(名實相符) : 소문난 것이 실제와 같음.
- 명약관화(明若觀火) : 불을 보듯 명백함. 틀림없이 뻔한 사실.
- ✓ 명재경각(命在頃刻) : 거의 죽게 되어 숨이 곧 넘어갈 지경에 이룸.
- 목불식정(目不識丁) : 낫 놓고 기역자도 모름. 아주 무식함. ㉠ 일자무식
- ✓ 목불인견(目不忍見) : 딱한 모양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음.
- 무념무상(無念無想) : 아무런 생각이 없음.
- 무릉도원(武陵桃源) : 이상세계.
- 무소부지(誣訴不知) : 모르는 것이 없음.
- 무소불위(無所不爲) : 못하는 것이 없음. 권세를 마음대로 부림.
- 무위도식(無爲徒食) : 하는 것 없이 놀고먹기만 함.
- 무지몽매(無知蒙昧) : 아는 것 없이 어리석음.
- 문경지교(刎頸之交) : 생사를 함께하는 친한 사이.
- 문일지십(聞一知十) :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미루어 앎.

- 동족방뇨(凍足放尿) :
- ✓ 두문불출(杜門不出) :
- 등고자비(登高自卑) :
- 등하불명(燈下不明) :
- ✓ 마이동풍(馬耳東風) :
- ✓ 막무가내(莫無可奈) :
- 막상막하(莫上莫下) :
- 막역지우(莫逆之友) :
- 만고상청(萬古常青) :
- 만단정회(萬端情懷) :
- ✓ 만시지탄(晚時之歎) :
- ✓ 망양지탄(亡羊之歎) :
- 망운지정(望雲之情) :
- ✓ 맥수지탄(麥秀之嘆) :
- ✓ 면종복배(面從腹背) :
- 멸사봉공(滅私奉公) :
- 명경지수(明鏡止水) :
- 명실상부(名實相符) :
- 명약관화(明若觀火) :
- ✓ 명재경각(命在頃刻) :
- 목불식정(目不識丁) :
- ✓ 목불인견(目不忍見) :
- 무념무상(無念無想) :
- 무릉도원(武陵桃源) :
- 무소부지(誣訴不知) :
- 무소불위(無所不爲) :
- 무위도식(無爲徒食) :
- 무지몽매(無知蒙昧) :
- 문경지교(刎頸之交) :
- 문일지십(聞一知十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문전성시(門前成市) : 마치 시장을 이룬 것처럼 권세 있는 집 문 앞에 손님이 많음.
- 물아일체(物我一體) : 외물과 자아, 물질과 정신, 객관과 주관 등이 어울려 하나가 됨.
- 미사여구(美辭麗句) : 아름답게 꾸민 말과 글귀.
- 박이부정(博而不精) : 널리 알고 있으나 자세하지 못함. ㉞ 정이불박
- 박장대소(拍掌大笑) :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.
- 박학다식(博學多識) : 학문이 넓고 식견이 많음.
- 반목질시(反目嫉視) : 눈을 뒤집으면서 질투하는 투로 봄.
- ✓ 반신반의(半信半疑) :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.
- 반포지효(反哺之孝) : 자식이 자라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함.
- 발본색원(拔本塞源) : 폐단의 근원을 아주 뽑아 없애버림.
- 방방곡곡(坊坊曲曲) : 한 군데도 빠짐없이 여러 곳.
- ✓ 방약무인(傍若無人) : 두려움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.
- 배수지진(背水之陣) : 목숨을 걸고 싸움.
- 배은망덕(背恩忘德) : 은혜를 잊고 도리어 배반함.
- 백골난망(白骨難忘) : 죽어도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음.
- ✓ 백년하청(百年河清) : 아무리 세월이 가도 일을 해결할 희망이 없음.
- 백년해로(百年偕老) :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여 늙음.
- 백년서생(百年書生) : 한갓 글만 읽고 세상일에 어두운 사람.
- 백중지간(伯仲之間) : 서로 어금버금하며 낫고 못함이 없는 사이. ㉞ 백중지세
- 백척간두(百尺竿頭) :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. ㉞ 누란지세, 위기일발
- 백해무익(百害無益) : 해만 있고 이익은 전혀 없음.
- 복잡다단(複雜多端) : 일이 어수선하여 갈피를 잡기 어려움.
- 본말전도(本末顛倒) : 일의 원 줄기를 잊고 사소한 부분에 사로잡힘.
- 부귀재천(富貴在天) :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.
- 부창부수(夫唱婦隨) : 남편의 뜻을 아내가 좇음
- ✓ 부화뇌동(附和雷同) : 제 주견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무턱대고 같이 움직임.
- 분골쇄신(粉骨碎身) :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함.
- 분기충천(憤氣冲天) :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름.
- 불구대천(不俱戴天) :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만큼의 큰 원한.
- 불립문자(不立文字) :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짐. ㉞ 이심전심

- 문전성시(門前成市) :
- 물아일체(物我一體) :
- 미사여구(美辭麗句) :
- 박이부정(博而不精) :
- 박장대소(拍掌大笑) :
- 박학다식(博學多識) :
- 반목질시(反目嫉視) :
- ✓ 반신반의(半信半疑) :
- 반포지효(反哺之孝) :
- 발본색원(拔本塞源) :
- 방방곡곡(坊坊曲曲) :
- ✓ 방약무인(傍若無人) :
- 배수지진(背水之陣) :
- 배은망덕(背恩忘德) :
- 백골난망(白骨難忘) :
- ✓ 백년하청(百年河清) :
- 백년해로(百年偕老) :
- 백년서생(百年書生) :
- 백중지간(伯仲之間) :
- 백척간두(百尺竿頭) :
- 백해무익(百害無益) :
- 복잡다단(複雜多端) :
- 본말전도(本末顛倒) :
- 부귀재천(富貴在天) :
- 부창부수(夫唱婦隨) :
- ✓ 부화뇌동(附和雷同) :
- 분골쇄신(粉骨碎身) :
- 분기충천(憤氣冲天) :
- 불구대천(不俱戴天) :
- 불립문자(不立文字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불문가지(不問可知) :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음.
- 불문곡직(不問曲直) :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함부로 행함.
- 불철주야(不撤晝夜) : 밤낮을 가리지 않음. 쉬지 않고 힘씀.
- 봉우유신(朋友有信) :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함.
- 비몽사몽(非夢似夢) : 꿈인지 생시인지 어렵פות한 상태.
- ✓ 비분강개(悲憤慷慨) :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침.
- 비일비재(非一非再) : 흔히 많음.
- 빈이무원(貧而無援) : 가난하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음.
- 빙탄지간(氷炭之間) : 얼음과 숯처럼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.
- ✓ 사고무친(四顧無親) : 의지할 사람 없이 아무 외로움.
- 사면초가(四面楚歌) : 도움 없이 고립된 상태. 사방이 적에 둘러싸임.
- 사상누각(砂上樓閣) :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오래 견디지 못함.
- ✓ 사필귀정(事必歸正) :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.
- 사후약방문(死後藥方文) : 때를 놓치고 난 뒤에 기울이는 헛된 노력.
- 살신성인(殺身成仁) : 참되고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침.
- 삼순구식(三旬九食) : 가난하여 먹을 것 없이 고생함.
- 삼십육계(三十六計) : 곤란할 때에는 도망가는 것이 상책.
- 삼인성호(三人成虎) : 여러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도 참말이 됨.
- ✓ 상전벽해(桑田碧海) :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.
- ✓ 새옹지마(塞翁之馬) : 인생의 길흉화복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음.
- ✓ 선견지명(先見之明) :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판단하는 총명함.
- 선공후사(先公後私) : 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사적인 일을 나중에 미룸.
- ✓ 설상가상(雪上加霜) : 불행이 얹힌 데 덮친 격으로 거듭 생김.
- ✓ 설왕설래(說往說來) : 서로의 주장을 내세움. 서로 말이 오고감.
- 섬섬옥수(纖纖玉手) :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.
- 소탐대실(小貪大失) :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.
- 속수무책(束手無策) : 뻔히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꼼짝 못함.
- ✓ 수구초심(首丘初心) :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.
- ✓ 수수방관(袖手傍觀) : 무관심하게 그저 옆에서 보고만 있음.
- 수어지교(水魚之交) : 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친분.

- 불문가지(不問可知) :
- 불문곡직(不問曲直) :
- 불철주야(不撤晝夜) :
- 봉우유신(朋友有信) :
- 비몽사몽(非夢似夢) :
- ✓ 비분강개(悲憤慷慨) :
- 비일비재(非一非再) :
- 빈이무원(貧而無援) :
- 빙탄지간(氷炭之間) :
- ✓ 사고무친(四顧無親) :
- 사면초가(四面楚歌) :
- 사상누각(砂上樓閣) :
- ✓ 사필귀정(事必歸正) :
- 사후약방문(死後藥方文) :
- 살신성인(殺身成仁) :
- 삼순구식(三旬九食) :
- 삼십육계(三十六計) :
- 삼인성호(三人成虎) :
- ✓ 상전벽해(桑田碧海) :
- ✓ 새옹지마(塞翁之馬) :
- ✓ 선견지명(先見之明) :
- 선공후사(先公後私) :
- ✓ 설상가상(雪上加霜) :
- ✓ 설왕설래(說往說來) :
- 섬섬옥수(纖纖玉手) :
- 소탐대실(小貪大失) :
- 속수무책(束手無策) :
- ✓ 수구초심(首丘初心) :
- ✓ 수수방관(袖手傍觀) :
- 수어지교(水魚之交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수원수구(誰怨誰咎) :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.
- ✓ 수주대토(守株待兔) :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함.
- ✓ 순망치한(脣亡齒寒) : 가까운 한 사람이 망하면 이웃도 함께 위험함.
  - 시기상조(時機尙早) : 아직 때가 이룸.
- ✓ 시시비비(是是非非) : 옳으니 그르니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말다툼.
- ✓ 식자우환(識字憂患) :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삼.
  - 신상필벌(信賞必罰) : 상벌을 규정대로 분명하게 함.
  - 신출귀몰(神出鬼沒) : 귀신처럼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.
  - 십벌지목(十伐之木) :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.
  - 십시일반(十匙一飯) :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제하기는 쉬움.
  - 아비규환(阿鼻叫喚) :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참상.
  - 아전인수(我田引水) : 자기에게 이롭게만 하려함.
  - 악전고투(惡戰苦鬪) : 죽을힘을 다하여 고되게 싸움.
  - 안심입명(安心立命) : 생사의 도리를 깨달아 내세의 안심을 꾀함.
  - 안분지족(安分知足) :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삶을 살 줄 앎.
  - 안빈낙도(安貧樂道) : 가난한 생활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김.
- ✓ 안하무인(眼下無人) : 태도가 몹시 건방져서 남을 사람같이 대하지 않음.
- ✓ 암중모색(暗中摸索) : 어림으로 일을 짐작함.
  - 애이불비(哀而不備) : 슬프지만 지나치게 슬퍼하지 아니함.
  - 약육강식(弱肉強食) :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먹힘.
  - 양두구육(羊頭狗肉) : 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치 않음.
- ✓ 양자택일(兩者擇一) : 둘 중에서 하나를 고름.
  - 어부지리(漁父之利) :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다투는 틈에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봄.
  - 어불성설(語不成說) : 말의 이치에 맞지 않음.
  - 언어도단(言語道斷) :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이 없음.
  - 언중유골(言中有骨) : 예사로운 말 가운데 단단한 속뜻이 있음.
  - 여러박빙(如履薄冰) : 극히 위험한 일, 혹은 매사에 조심하는 것.
  - 역지사지(易地思之) :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.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봄.
- ✓ 연목구어(緣木求魚) :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하고자 함.
  - 연하고질(煙霞痼疾) :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려 하는 병적인 마음.



- 수원수구(誰怨誰咎) :
- ✓ 수주대토(守株待兔) :
- ✓ 순망치한(脣亡齒寒) :
- 시기상조(時機尙早) :
- ✓ 시시비비(是是非非) :
- ✓ 식자우환(識字憂患) :
- 신상필벌(信賞必罰) :
- 신출귀몰(神出鬼沒) :
- 십벌지목(十伐之木) :
- 십시일반(十匙一飯) :
- 아비규환(阿鼻叫喚) :
- 아전인수(我田引水) :
- 악전고투(惡戰苦鬪) :
- 안심입명(安心立命) :
- 안분지족(安分知足) :
- 안빈낙도(安貧樂道) :
- ✓ 안하무인(眼下無人) :
- ✓ 암중모색(暗中摸索) :
- 애이불비(哀而不備) :
- 약육강식(弱肉強食) :
- 양두구육(羊頭狗肉) :
- ✓ 양자택일(兩者擇一) :
- 어부지리(漁父之利) :
- 어불성설(語不成說) :
- 언어도단(言語道斷) :
- 언중유골(言中有骨) :
- 여리박빙(如履薄冰) :
- 역지사지(易地思之) :
- ✓ 연목구어(緣木求魚) :
- 연하고질(煙霞痼疾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염량세태(炎涼世態) : 권세가 있을 때는 아부하고, 몰락하면 푸대접하는 세상의 인심.
- 염화미소(拈華微笑) :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짐. ㉞ 불립문자, 이심전심, 염화시중
- 영고성쇠(榮枯盛衰) : 개인이나 사회의 성하고 쇠함이 서로 뒤바뀌는 현상.
- ✓ 오리무중(五里霧中) : 일의 갈피를 잡기 어려움.
- 오매불망(寤寐不忘) : 밤낮으로 잊지 못함.
- ✓ 오불관언(吾不關焉) : 자신은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. ㉞ 수수방관
- 오비이락(鳥飛梨落) : 공교롭게 뜻밖의 의심을 받음.
- 오상고절(傲霜孤節) : 굽히지 않는 굳은 절개.
- ✓ 오월동주(吳越同舟) : 서로 미워하면서도 공통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함.
- 오합지졸(烏合之卒) : 아무 규율도 통일도 없이 몰려다니는 무리.
- 옥석구분(玉石俱焚) : 착한이나 악한이나 다 같이 재앙을 당함.
- ✓ 온고지신(溫故知新) :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앎.
- 와신상담(臥薪嘗膽) : 원수를 갚고자 고생을 참고 견딤.
- 외유내강(外柔內剛) :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거나 속은 강함.
- ✓ 요지부동(搖之不動) : 흔들어도 움직이지 아니함.
- 용두사미(龍頭蛇尾) : 처음은 야단스러우나 끝은 보잘것없이 흐지부지됨.
- 용호상박(龍虎相搏) : 강자끼리 승부를 다퉈.
- 우공이산(愚公移山) : 무슨 일이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함.
- 우유부단(優柔不斷) : 머뭇거리기만 하고 판단을 내리지 못함.
- 우이독경(牛耳讀經) : 쇠귀에 경 읽기.
- 우후죽순(雨後竹筍) : 어떠한 일이 한때에 많이 일어남.
- 원화소복(遠禍召福) :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임.
- 위기일발(危機一髮) : 위급한 경우에 다다른 순간. ㉞ 백척간두, 일촉즉발
- 위풍당당(威風堂堂) : 풍채가 위엄이 있어 당당함.
- ✓ 유구무언(有口無言) : 변명할 말이 없거나 못함.
- 유명무실(有名無實) : 명목만 있고 실상은 없음.
- 유비무환(有備無患) :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될 것이 없음.
- 유아독존(唯我獨尊) : 오직 자기 자신만이 홀로 존귀함.
- 유언비어(流言蜚語) : 근거 없이 널리 퍼진 뜬소문.
- ✓ 유유상종(類類相從) : 같은 무리끼리 서로 내왕하며 사귀.

- 염량세태(炎凉世態) :
- 염화미소(拈華微笑) :
- 영고성쇠(榮枯盛衰) :
- ✓ 오리무중(五里霧中) :
- 오매불망(寤寐不忘) :
- ✓ 오불관언(吾不關焉) :
- 오비이락(烏飛梨落) :
- 오상고절(傲霜孤節) :
- ✓ 오월동주(吳越同舟) :
- 오합지졸(烏合之卒) :
- 옥석구분(玉石俱焚) :
- ✓ 온고지신(溫故知新) :
- 와신상담(臥薪嘗膽) :
- 외유내강(外柔內剛) :
- ✓ 요지부동(搖之不動) :
- 용두사미(龍頭蛇尾) :
- 용호상박(龍虎相搏) :
- 우공이산(愚公移山) :
- 우유부단(優柔不斷) :
- 우이독경(牛耳讀經) :
- 우후죽순(雨後竹筍) :
- 원화소복(遠禍召福) :
- 위기일발(危機一髮) :
- 위풍당당(威風堂堂) :
- ✓ 유구무언(有口無言) :
- 유명무실(有名無實) :
- 유비무환(有備無患) :
- 유아독존(唯我獨尊) :
- 유언비어(流言蜚語) :
- ✓ 유유상종(類類相從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유유자적(悠悠自適) : 속세를 떠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안히 생활함.
- 은인자중(隱忍自重) : 마음속으로 괴로움을 참으며 몸가짐을 스스로 조심함.
- 음풍농월(吟風弄月) : 맑은 바람과 밝은 달에 대해 시를 짓고 즐기어 높.
- 의기소침(意氣銷沈) : 의기가 쇠하여 사그라짐.
- 의기양양(意氣揚揚) : 득의(得意)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.
- 이관규천(以管窺天) : 우물 안 개구리. 대롱을 통해 하늘을 봄.
- ✓ 이구동성(異口同聲) : 여러 사람이 똑같이 말함.
- ✓ 이란투석(以卵投石) :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.
- 이실직고(以實直告) : 사실대로 바로 고함.
- ✓ 이심전심(以心傳心) : 마음으로 이치를 깨닫게 함. ㉞ 불립문자, 영화미소, 영화시중
- ✓ 이열치열(以熱治熱) : 어떤 작용에 대해 그것과 같은 수단으로 대응함. ㉞ 이이제이
- ✓ 이왕지사(已往之事) : 이미 지나간 일.
- 이용후생(利用厚生) : 세상의 편리와 살림의 이익을 꾀함.
- 이율배반(二律背反) : 서로 모순되는 사실이 한 행동이나 사건 속에 주장 됨.
- 인과응보(因果應報) : 지은 업에 대하여 받은 업보.
- 인면수심(人面獸心) :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없음.
- 인명재천(人名在天) : 사람의 오래 살고 일찍 죽음은 다 하늘에 달려있음.
- 인사불성(人事不省) : 정신을 잃음.
- 인산인해(人山人海) :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.
- ✓ 일거양득(一舉兩得) : 한 가지 한일에 두 가지 효과를 얻음.
- 일도양단(一刀兩斷) :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히 처리함.
- 일망무제(一望無際) : 아득하게 멀어 눈을 가리는 것이 없음.
- 일망타진(一網打盡) : 한 사건에 관련 있는 자를 다 잡음.
- ✓ 일벌백계(一罰百戒) :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다른 여러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.
- 일사천리(一瀉千里) : 사물이 지체 없이 진행됨.
- 일석이조(一石二鳥) : 한 가지 일이 두 가지로 이로움. ㉞ 일거양득
- 일언반구(一言半句) : 아주 짧은 말이나 글귀.
- ✓ 일장춘몽(一場春夢) : 인생의 영화는 한바탕 봄의 꿈과 같이 헛됨. ㉞ 남가일몽, 한단지몽
- ✓ 일진일퇴(一進一退) : 한 번 앞으로 나아갔다 한 번 뒤로 물러섰다 함.
- 일촉즉발(一觸卽發) : 일이 금세라도 일어날 듯한 위험한 지경. ㉞ 위기일발

- 유유자적(悠悠自適) :
- 은인자중(隱忍自重) :
- 음풍농월(吟風弄月) :
- 의기소침(意氣銷沈) :
- 의기양양(意氣揚揚) :
- 이관규천(以管窺天) :
- ✓ 이구동성(異口同聲) :
- ✓ 이란투석(以卵投石) :
- 이실직고(以實直告) :
- ✓ 이심전심(以心傳心) :
- ✓ 이열치열(以熱治熱) :
- ✓ 이왕지사(已往之事) :
- 이용후생(利用厚生) :
- 이율배반(二律背反) :
- 인과응보(因果應報) :
- 인면수심(人面獸心) :
- 인명재천(人名在天) :
- 인사불성(人事不省) :
- 인산인해(人山人海) :
- ✓ 일거양득(一舉兩得) :
- 일도양단(一刀兩斷) :
- 일망무제(一望無際) :
- 일망타진(一網打盡) :
- ✓ 일벌백계(一罰百戒) :
- 일사천리(一瀉千里) :
- 일석이조(一石二鳥) :
- 일언반구(一言半句) :
- ✓ 일장춘몽(一場春夢) :
- ✓ 일진일퇴(一進一退) :
- 일촉즉발(一觸卽發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일취월장(日就月將) : 날로 달도 자라거나 발전함.
- ✓ 일편단심(一片丹心) : 변치 않는 마음.
  - 임기응변(臨機應變) : 변화되는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적당히 처리함.
  - 자가당착(自家撞着) : 자기의 언행이 전후가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.
  - 자강불식(自強不息) : 스스로 힘써 쉬지 아니함.
- ✓ 자격지심(自激之心) : 어떠한 일을 해 놓고 제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.
  - 자급자족(自給自足) : 자기의 수요를 자기가 생산하여 충당함.
  - 자수성가(自手成家) :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 재산을 모아 일가를 이룩함.
- ✓ 자승자박(自繩自縛) :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괴로움을 받게 됨.
  - 자업자득(自業自得) :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오를 자기 자신이 받음.
- ✓ 자중지란(自中之亂) : 자기네 한 동아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.
  - 자초지종(自初至終) :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정.
  - 자포자기(自暴自棄) :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돌보지 않음.
- ✓ 자화자찬(自畫自讚) :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칭찬함.
  - 작심삼일(作心三日) : 결심이 굳지 못하여 사흘도 못 감.
  - 장삼이사(張三李四) : 평범한 사람들 ㉸ 갑남을녀, 초동급부, 필부필부
  - 재자가인(才子佳人) : 재주 있는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.
  - 적반하장(賊反荷杖) :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에게 나무람.
  - 전광석화(電光石火) : 일이 매우 빠름.
- ✓ 전전긍긍(戰戰兢兢) : 몹시 두려워 매우 조심함.
  - 전전반측(輾轉反側) : 무슨 근심이 있어 누워 뒤굴며 잠을 이루지 못함.
- ✓ 전화위복(轉禍爲福) : 불행한 일이 도리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옴.
  - 절차탁마(切磋琢磨) : 학문, 기술 등을 갈고 닦고 가꿈.
  - 절치부심(切齒腐心) : 대단히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.
- ✓ 점입가경(漸入佳境) :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.
  - 정저지와(井底之蛙) : 우물 안 개구리.
  - 정문일침(頂門一鍼) : 남의 잘못의 급소를 찾아 따끔하게 충고함.
- ✓ 조변석개(朝變夕改) : 무슨 일을 자주 바꿈. ㉸ 조령모개, 조석변개
  - 조삼모사(朝三暮四) : 간사한 속임수로 남을 농락함.
  - 조족지혈(鳥足之血) : 새 발의 피. 극히 적은 양.

- 일취월장(日就月將) :
- ✓ 일편단심(一片丹心) :
- 임기응변(臨機應變) :
- 자가당착(自家撞着) :
- 자강불식(自強不息) :
- ✓ 자격지심(自激之心) :
- 자급자족(自給自足) :
- 자수성가(自手成家) :
- ✓ 자승자박(自繩自縛) :
- 자업자득(自業自得) :
- ✓ 자중지란(自中之亂) :
- 자초지종(自初至終) :
- 자포자기(自暴自棄) :
- ✓ 자화자찬(自畫自讚) :
- 작심삼일(作心三日) :
- 장삼이사(張三李四) :
- 재자가인(才子佳人) :
- 적반하장(賊反荷杖) :
- 전광석화(電光石火) :
- ✓ 전전긍긍(戰戰兢兢) :
- 전전반측(輾轉反側) :
- ✓ 전화위복(轉禍爲福) :
- 절차탁마(切磋琢磨) :
- 절치부심(切齒腐心) :
- ✓ 점입가경(漸入佳境) :
- 정저지와(井底之蛙) :
- 정문일침(頂門一鍼) :
- ✓ 조변석개(朝變夕改) :
- 조삼모사(朝三暮四) :
- 조족지혈(烏足之血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조화신공(造化神功) : 만물을 창조한 신의 공로.
- 좌고우면(左顧右盼) :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,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룸.
- 좌불안석(坐不安席) :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함.
- 주객전도(主客顛倒) : 주인과 손님이 뒤바뀜. 사물의 경중·완급·선후가 뒤바뀜.
- 주마가편(走馬加鞭) :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함.
- 주마간산(走馬看山) : 바빠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지나침.
- 죽마고우(竹馬故友) : 어릴 때 같이 놀던 친한 친구.
- 중과부적(衆寡不敵) :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기지 못함.
- ✓ 중구난방(衆口難防) : 여러 사람의 말을 막기 어려움.
- 중언부언(重言復言) : 한 말을 또 함.
- ✓ 지기지우(知己之友) : 서로 뜻이 통하는 친한 벗.
- 지록위마(指鹿爲馬) : 못 사람을 속여 권세를 휘두름.
- 지리멸렬(支離滅裂) : 어떤 일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음.
- 지성감천(至誠感天) : 정성이 자극하면 하늘도 감동함.
- ✓ 진퇴양난(進退兩難) :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음. ㉠ 진퇴유곡
- ✓ 진퇴유곡(進退維谷) :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짐.
- 차일피일(此日彼日) : 자꾸 기일을 미룸.
- 창해일속(滄海一粟) : 크고 넓은 것 가운데에 있는 아주 작은 것.
- 천고마비(天高馬肥) :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가을.
- 천려일득(千慮一得) : 천 번을 생각하여 하나를 얻음. 어리석은 사람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음.
- ✓ 천려일실(千慮一失) :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.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음.
- 천방지축(天方地軸) : 함부로 덤벼거림.
- 천석고황(泉石膏肓) : 고질병이 되다시피 산수풍경을 좋아하는 것. ㉠ 연하지질
- 천신만고(千辛萬苦) : 온갖 어려움.
- 천양지차(天壤之差) :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. 아주 큰 차이.
- 천우신조(天佑神助) :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.
- 천의무봉(天衣無縫) : 손 닿 곳기 없을 만큼 자연스러움.
- ✓ 천재일우(千載一遇) : 천년에나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. ㉠ 천재일시
- 천진난만(天真爛漫) : 조금도 꾸밈없이 아주 순진하고 참됨.
- 천차만별(千差萬別) : 여러 가지 사물이 모두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음.



- 조화신공(造化神功) :
- 좌고우면(左顧右盼) :
- 좌불안석(坐不安席) :
- 주객전도(主客顛倒) :
- 주마가편(走馬加鞭) :
- 주마간산(走馬看山) :
- 죽마고우(竹馬故友) :
- 중과부적(衆寡不敵) :
- ✓ 중구난방(衆口難防) :
- 중언부언(重言復言) :
- ✓ 지기지우(知己之友) :
- 지록위마(指鹿爲馬) :
- 지리멸렬(支離滅裂) :
- 지성감천(至誠感天) :
- ✓ 진퇴양난(進退兩難) :
- ✓ 진퇴유곡(進退維谷) :
- 차일피일(此日彼日) :
- 창해일속(滄海一粟) :
- 천고마비(天高馬肥) :
- 천려일득(千慮一得) :
- ✓ 천려일실(千慮一失) :
- 천방지축(天方地軸) :
- 천석고황(泉石膏肓) :
- 천신만고(千辛萬苦) :
- 천양지차(天壤之差) :
- 천우신조(天佑神助) :
- 천의무봉(天衣無縫) :
- ✓ 천재일우(千載一遇) :
- 천진난만(天真爛漫) :
- 천차만별(千差萬別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천편일률(千篇一律) : 여러 사물이 서로 비슷함.
- 천하태평(天下泰平) : 온 세상이 태평함. 세상근심 모르고 편안함.
- 철두철미(徹頭徹尾) :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함.
- 철천지원(徹天之冤) :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.
- 청산유수(靑山流水) : 막힘이 없이 말을 썩 잘함.
- ✓ 청천벽력(靑天霹靂) : 맑게 갠 하늘에 벼락. 뜻밖에 일어나는 일.
- ✓ 청출어람(靑出於藍) : 제자가 스승보다 나옴.
- 초동급부(樵童汲婦) : 평범한 사람들. ㉠ 갑남을녀, 장삼이사, 필부필부
- ✓ 초록동색(草綠同色) : 같은 처지의 사람과 어울리거나 기움.
- 초미지급(焦眉之急) : 매우 급한 일.
- 촌철살인(寸鐵殺人) : 간단한 경구로도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약점을 찌를 수 있음.
- 출장입상(出將入相) : 나서면 장수, 들면 재상. 문무가 다 갖추어진 사람.
- 칠전팔기(七顛八起) : 여러 번 실패하여도 꾸준히 일어남.
- ✓ 칠종칠금(七縱七擒) : 상대를 마음대로 다룸. 인내를 가지고 상대가 숙여 들어오기를 기다림.
- ✓ 침소봉대(針小棒大) : 바늘을 몽둥이라고 말하듯 과장해서 말함.
- 타산지석(他山之石) :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배울 것이 있음.
- 탁상공론(卓上空論) : 전혀 실현성이 없는 헛된 의논.
- 태평성대(太平聖代) :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.
- 토사구팽(兔死狗烹) :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림.
- 파란만장(波瀾萬丈) : 일의 진행에 변화가 심함.
- 파안대소(破顏大笑) :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크게 웃음.
- 파죽지세(破竹之勢) : 세력이 강하여 견잡을 수 없이 나아가는 모양.
- 폐포파립(弊袍破笠) : 해진 옷과 부서진 갓. 너절하고 구차한 차림새.
- 포복절도(抱腹絶倒) : 몹시 우스워 배를 안고 몸을 가누지 못함.
- ✓ 표리부동(表裏不同) :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.
- 풍전등화(風前燈火) : 매우 위급한 경우에 놓여 있음. ㉠ 위기일발
- 풍찬노숙(風餐露宿) :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.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음.
- 필부필부(匹夫匹婦) : 평범한 사람들. ㉠ 갑남을녀, 초동급부, 장삼이사
- 하석상대(下石上臺) : 임기응변으로 어려운 일을 처리함. ㉠ 동족방뇨, 임기응변, 임시방편
- 학수고대(鶴首苦待) : 몹시 기다림.

- 천편일률(千篇一律) :
- 천하태평(天下泰平) :
- 철두철미(徹頭徹尾) :
- 철천지원(徹天之冤) :
- 청산유수(靑山流水) :
- ✓ 청천벽력(靑天霹靂) :
- ✓ 청출어람(靑出於藍) :
- 초동급부(樵童汲婦) :
- ✓ 초록동색(草綠同色) :
- 초미지급(焦眉之急) :
- 촌철살인(寸鐵殺人) :
- 출장입상(出將入相) :
- 칠전팔기(七顛八起) :
- ✓ 칠종칠금(七縱七擒) :
- ✓ 침소봉대(針小棒大) :
- 타산지석(他山之石) :
- 탁상공론(卓上空論) :
- 태평성대(太平聖代) :
- 토사구팽(兔死狗烹) :
- 파란만장(波瀾萬丈) :
- 파안대소(破顏大笑) :
- 파죽지세(破竹之勢) :
- 폐포파립(弊袍破笠) :
- 포복절도(抱腹絕倒) :
- ✓ 표리부동(表裏不同) :
- 풍전등화(風前燈火) :
- 풍찬노숙(風餐露宿) :
- 필부필부(匹夫匹婦) :
- 하석상대(下石上臺) :
- 학수고대(鶴首苦待) :

# 수능 종합언어 한자성어 완전정복기

- 한단지몽(邯鄲之夢) : 인간의 일생이란 한바탕의 꿈과 같이 허무함. ㉞ 남가일몽
- ✓ 함구무언(緘口無言) : 입을 닫고 말하지 않음.
- 함분축원(含憤蓄怨) : 분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쌓음.
- 함포고복(含哺鼓腹) : 배불리 먹고 즐겁게 지냄.
- 함흥차사(咸興差使) : 한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음.
- 허심탄회(虛心坦懷) :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함.
- ✓ 허장성세(虛張聲勢) : 실속이 없이 허세를 부림.
- ✓ 혈혈단신(孑孓單身) :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홀몸.
- 형설지공(螢雪之功) :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함.
- ✓ 호가호위(狐假虎威) : 약한 자가 남의 힘을 빌어 자신의 위신을 세움.
- 호구지책(糊口之策) : 먹고 살 방법.
- 호사다마(好事多魔) :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 많음.
- 호시탐탐(虎視眈眈) : 기회를 노리며 형세를 살핌.
- 호연지기(浩然之氣) :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른 자세.
- 호접지몽(胡蝶之夢) : 나비가 된 꿈. 인생의 무상함.
- 호형호제(呼兄呼弟) : 서로 형, 아우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친구 사이.
- 흑세무민(惑世誣民) :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.
- 혼정신성(昏定晨省) : 부모를 정성껏 돌보아 살핌.
- ✓ 혼비백산(魂飛魄散) :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짐. 몹시 놀라 넋을 잃음.
- 화룡점정(畫龍點睛) : 가장 요긴한 곳에 손을 대어 작품을 완성함.
- 화사첨족(畫蛇添足) : 필요 없는 것을 덧붙임.
- 화중지병(畫中之餅) : 그림의 떡. 보기만 하고 실제로 얻을 수 없음.
- ✓ 환골탈태(換骨奪胎) :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.
- 회자인구(膾炙人口) :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입에 오르내리고 찬양을 받음.
- ✓ 회자정리(會者定離) :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임. ㉞ 거자필반
- 횡설수설(橫說豎說) : 조리 없는 말을 함부로 함.
- ✓ 후생가외(後生可畏) : 후진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려움.
- 후안무치(厚顏無恥) : 뻔뻔스럽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름.
- ✓ 후회막급(後悔莫及) : 일이 잘못된 뒤라 아무리 뉘우쳐도 어찌할 수 없음.
- ✓ 흥진비래(興盡悲來) :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옴. 세상의 이치.

- 한단지몽(邯鄲之夢) :
- ✓ 함구무언(緘口無言) :
- 함분축원(含憤蓄怨) :
- 함포고복(含哺鼓腹) :
- 함흥차사(咸興差使) :
- 허심탄회(虛心坦懷) :
- ✓ 허장성세(虛張聲勢) :
- ✓ 혈혈단신(孑孓單身) :
- 형설지공(螢雪之功) :
- ✓ 호가호위(狐假虎威) :
- 호구지책(糊口之策) :
- 호사다마(好事多魔) :
- 호시탐탐(虎視眈眈) :
- 호연지기(浩然之氣) :
- 호접지몽(胡蝶之夢) :
- 호형호제(呼兄呼弟) :
- 흑세무민(惑世誣民) :
- 혼정신성(昏定晨省) :
- ✓ 혼비백산(魂飛魄散) :
- 화룡점정(畫龍點睛) :
- 화사첨족(畫蛇添足) :
- 화중지병(畫中之餅) :
- ✓ 환골탈태(換骨奪胎) :
- 회자인구(膾炙人口) :
- ✓ 회자정리(會者定離) :
- 횡설수설(橫說豎說) :
- ✓ 후생가외(後生可畏) :
- 후안무치(厚顏無恥) :
- ✓ 후회막급(後悔莫及) :
- ✓ 흥진비래(興盡悲來) :

상위권 언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

**Orbis Optimus • 수능 종합언어**